

무순 제4회 중한문화주 조선족민속축제 개막



6월 9일, 단오절을 맞이하며 무순 시문화방송영화텔레비죤국, 무순 시민족사무위원회, 무순시심무신성관리위원회의 공동 주최, 무순시조선족문화관, 무순시조선족경제문화교류협회, 심무신성 사회사업발전국의 주관, 무순시조선족기업가협회의 협찬으로 '중국 무순 제4회 중한문화주 및 조선족민속축제 개막식'이 풍경이 수려한 무순시 심무신성 금풍만공원에서 성황리에 진행되었다.

이날 개막식에는 무순시 당위부서기 유국위를 비롯한 시인대, 시정부, 시정협회, 평도들과 료녕성조선족경제문화교류협회 부리사장변시흥, 료녕성조선족애심기금회 회장 박성관, 주 심양한국총영사관 강형식영사, 한국 경기도 구리

시 예술단, 한국 경기도 성남시무용단, 한국광주시 송원소년예술단 성원과 재무순한인회, 무순시조선족 민간단체의 책임자와 조선족군중 3000여명이 참가하였다.

개막식에서 무순시 심무신성 기공위서기(紀工委書記) 진진용의 환영사와 무순시조선족기업가 협회 회장 박성태, 한국 주 심양총영사관 령사 강형식, 무순시인민정부 부비서장 장의 등의 축사가 있었다. 무순시당위 부서기 유국위가 '중국 무순 제4회 중한문화주 및 조선족민속축제' 개막을 선포하였다.

진진용은 환영사에서 무순시 심무신성 당공위와 관위회를 대표하여 개막식에 참석한 평도와 국제우인, 성내의 손님들에게 충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이번 행사에 참가

한 무순시 조선족동포와 광대한 시민들에게 명절의 축하와 열렬히 환영을 표하였다. 그는"이번 중한문화교류는 심무신성의 문화사업발전과 번영에 적극적인 영향을 가져올것이며 이번 기회로 심무신성의 문화사업을 진일보 풍부하고 번영할것"이라고 말하였다.

박성태는 축사에서 "심무신성은 무순시경제사회발전이 제일 쾌속적이고 도시건설이 매우 빨리 발전하는 지역으로 무순시 개혁개방의 창구와 최전선이고 무순시조선족의 주요집거지이다. 이번 행사를 이곳에서 진행하는것은 한국에 예술가의 정제로운 표현을 학습하고 감상하며 두 나라의 전통문화를 교류하고 춤과 노래로 개혁개방과 당의 민족정책, 행복한 생활을 구

가하고 공동히 자기의 명절을 경축"하기 위해서라고 말하였다.

강형식영사는 축사에서 "200만명에 달하는 조선족은 한중 수교이후 랑국 관계 발전과정에 중요한교량 작용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 랑국 관계의 협력을 한단계 격상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할것으로 전망"하고 "한중문화주를 통하여 한국과 무순 지간의 우의 증진과 경제 문화 등 제반 분야의 협력이 가일층 강화될것으로 생각하며 우리 총영사관은 발전 잠재력이 높은 무순시를 한국에 적극 홍보"하겠다고 표시하였다.

무순시인민정부 부비서장 장의는 축사에서 명절의 축하에 이어 7000년 역사를 가진 무순시에서 이번 행사를 진행하는것은 뜻깊은 일로서 중한문화교류사에 한페이지를 남을것이라고 말하였다.

개막식공연은 무순시조선족문화관의 무용 '삼복춤'을 첫 무대로 한국과 무순시에서 준비한 다채로운 종목들이 선을 보였다.

이번 무순중한문화주간 다양한 행사가 진행하게 되는데 6월 9일 저녁 무순북역광장에서는 한국 우수 문예단체가 참여한 '중한가무공연'이 화려하게 진행되었다. 6월 10일부터 15일까지 각 현구문화광장과 영화관에서 '한국영화주' 활동을 가져 한국영화를 상영하고 6월 13일부터 15일까지 무순시 도서관에서 국내외 우수촬영작품을 모은 '중한촬영작품 전시회'가 이어진다.

/마현걸 기자

아리랑방송 '바로 쓰는 우리말' 인기



▲ 3월 23일부터 '바로 쓰는 우리말'프로가 연길아리랑방송에서 시작. 사진은 '바로 쓰는 우리말'프로의 진행자들이다.

연길아리랑방송에서 지난 3월 23일부터 시작한 '바로 쓰는 우리말'프로가 청취자들로부터 점차 인기를 누리면서 주목받고 있다.

지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4년동안 연변인민방송국에서 토크쇼 진행자로 활약했던 리재준씨가 제작과 진행을 맡고있는 '바로 쓰는 우리말'은 비속어, 은

어, 외래어때문에 몸살을 앓고있는 우리말을 규범화하기 위해 기획한 국내 최초의 유일한 우리말 교육 프로그램이다.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저녁 10시 30분부터 20분간 FM88.0에서 방송되는 '바로 쓰는 우리말'은 중국내 우리말 방송에서 최초로 심야시간대에 진행되는 생방송프로 그램이라는데서 그 의미가 남다

르다.

'바로 쓰는 우리말'은 '우리말 겨루기', '우리말 성구와 속담', '사전에서 잡자는 우리말', '우리말에 담긴 이야기'등 다양한 내용으로 진행되고 있어 듣는 사람들이 따분하지 않고 흥미로운 가운데 우리말을 배울수 있게 한다.

/길신

영구시 고구려 건안성유적 국가중점보호문물로 지정

고구려와 당나라의 격전장이었던 료녕(遼寧)성 영구(營口)시에 있는 고구려 건안성(建安城) 유적이 국가급 중점보호문물로 지정됐다.

영구시 관할지역 개주(蓋州)시 청석령(靑石嶺)진에 남아 있는 건안

성 유적은 제7차 전국중점문화유산단위에 포함됐다.

이곳은 645년 당태종이 고구려와 격전을 벌였던 장소이다. 건안성은 성벽의 둘레가 5km가량이며 성 안에는 높이 200m의 작은 산이 있고 우

물 5곳과 저수지가 남아 있다.

건안성 유적지에서는 고구려 특유의 붉은색 줄무늬 기와조각과 격자무늬 기와조각을 비롯해 돌절구, 자기, 철갑옷 조각, 마구, 철제 화살촉 등이 출토됐다.



조선족 외국로무가정 노린 신종사기 기승

연변에서 자녀가 한국을 비롯한 외국으로 일자리를 찾아 떠난 가정을 대상으로 돈을 뜯어낸 신종사기사건이 적발됐다.

장춘시 성시척간의 보도에 따르면 도문시공안국 흥광변방파출소는 최근 외국로무가정을 대상으로 삼상 사기행각을 벌인 중국인 전모씨를 붙잡아 조사하고있다.

경찰조사에 따르면 연길출신인 전씨는 올해초부터 인터넷 메신저

인 MSN을 통해 외국에서 일하는 연변젊은이들을 사귄 뒤 자연스럽게 상대방의 개인정보와 가족상황 등을 알아냈다.

전씨는 이렇게 알아낸 정보를 리용해 피해자의 부모만 있는 집을 방문해 "아들과 외국에서 함께 일하다가 먼저 귀국한 친구"라며 "아들이 부모님께 드리려고 보낸 옷과 약 등을 공항에서 찾아오려면 돈이 필요하다"고 속여 적게

는 500원, 많게는 1,200원씩 받아 가로챘다.

연변현직경찰은 각 현지역에서 이같은 수법의 사기피해가 잇따르고 있음을 파악하고 피해자들이 진술한 용의자 인상착의를 토대로 수사를 벌였다. 그 결과 PC방에서 자신의 노트북을 리용해 인터넷 채팅을 하고 대화내용을 수첩에 적고있던 전씨를 검거했다.

경찰조사결과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만 19명에 이르며 피해액수가 적어 신고하지 않은 사람이 더 있을것으로 보고 피해상황을 파악하고있다.

경찰관계자는 "인터넷 채팅을 할 때 개인정보가 류출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낯선 사람이 집에 찾아와 금품을 요구하면 반드시 사실확인을 한뒤 돈을 건네야 한다"고 당부했다.

/종합

중국 첫 항모 료녕함 내부시설 공개



▲중국 첫 항모인 료녕함의 관병들은 어떻게 생활하고있을까? 최근 기자는 이 어마어마한 "해상도시"에 들어섰다. 료녕함 비행갑판 아래에는 심여층이 되는데 기자는 제3층에 들어섰다. 미공과 흡사한 이곳은 도처에 통로, 선실이 있었으며 전반 항모내부의 통로를 모두 합치면 총 길이가 수십킬로메터가 된다고 한다. 항모내부의 구조가 얼마나 복잡한지 가히 짐작할수 있다.

광고·구독문의 전화 : 02-2637-0814

노래방기계 임대

- 동포단체나 개인, 그리고 업체들에서 각종 행사에 사용 가능
- 실내와 실외에서 모두 사용할 수 있는 기계
- 임대료는 10만원/1회이며 배송이 필요할 경우 15만원/1회

문의전화

070-7711-7775
010-6866-0815

한화생명 동포를 위한 보험설계 상담

빨고 빨기쉽시오 역대영봉 현실입니다

내일을 양안 금융 **한화생명**

- 1.보험 전문가 모집 및 상담
- 2.병원비 걱정인 분(임원,통원 치료 최저 2만원대 가능)
- 3.목 적 사 금 만 들 분
- 4.자동차,연금 등 보험상담

아프면 보험생각

늡으면 연금생각

당신의 소중한 꿈을

응원하는 한화생명

누구도 다 할수 있는 /고소득의 직업 **가업에서 보장까지 한화생명이 함께 합니다.**

FP:정미화 TEL: 031)303-0254 핸드폰: 010-3716-7775

SK Telecom LG Telecom **allem kt** 공식대리점

최신형 스마트폰 으로 바꾸고

현금 **20~50** 만원



* 함께 사업 하실분 찾습니다 *

신규, 기기변경, 번호이동 (쓰던번호 그대로 사용가능)
매장 방문후 요금제, 핸드폰 자유선택후 당일지금
대출, 다단계, 별정통신, 선물폰이 아닙니다

구로지점 HP : 010-3068-1872
양재본점 TEL : 02-2057-1090